

건설교통부,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본격 가동

불법하도급·기술자 이중배치 적발

불법·부실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퇴출이 대폭 강화되었다.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 구축사업과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지난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을 본격 가동했다.

본 법·부실업체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퇴출을 강화할 수 있는 건설산업DB 정보망이 금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건설산업이 획기적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.

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 구축사업과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지난 연말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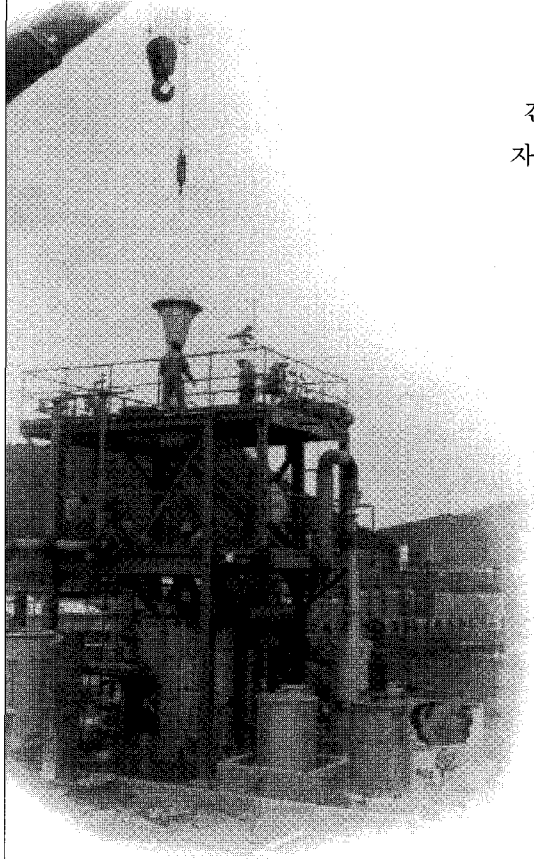
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건설산업중앙DB를 중심으로 건설행정정보시스템(CIS)·건설공사정보시스템(CWS)·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시스템(PCM)·토석정보공유시스템(EIS)·건설산업정보시스템(KISCON)·정부인트라넷(GOV) 등 6개의 개별정보시스템과 대한설비건설협회, 공제조합, 기술인협회 등 11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.

건설산업중앙db에는 총 500만건 이상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1만 3천여 개 일반 및 5만 5천여 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현황 및 처분정보가 입력되어 있다.

이와 함께 원도급공사를 기준으로 2003년도 2만6천여 건 공사(약 85조원), 2004년도 3만6천여 건 공사(약 68조원)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,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수행실적·보증정보·기술인 정보가 취합되어 종합 관리되고 있다.

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건설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실 및 불법업체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건설시장의 대표적 불법·부조리 행위인 일괄하도급·중층하도급 등 불법 행위 업체를 강력히 퇴출해 나갈 방침이다.





건설교통부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적 행정처리체계가 구축되고 건설산업 활동 주체의 모든 정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건설행정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에 제고되는 한편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건설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“앞으로 일괄 및 위장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은 물론 허위실적, 기술자 이중배치 등은 더 이상 건설현장에 발을 못 붙일 것은 물론 불법 및 부실업체도 건설시장에서 퇴출 될 것”이라며 “건설산업 및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관계자는 특히 “건설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비롯한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건설산업의 효율성을

높일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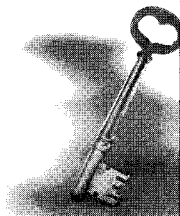
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설비, 전문, 일반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불법하도급 적발 및 현장기술자 이중배치 검색, 부실업체 상시감시 기능체계 등에 대한 하도급 순회 강습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다.

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(KISCON)

건설행정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건설관련단체, 건설업체, 건설기술자 등 건설산업 참여자들이 건설활동과정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를 DB화해 건설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가공,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.

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업 등록, 각종 신고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 등 건설행정 정보내용을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의 현황을 상호·지역·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다.

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발주자는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, 즉 공사개요 도급계약 현장기술인 배치 하도급 현황 등의



건설공사의 수행사항을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다.

또 매년 8월 31일에 공시하는 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 결과와 건설산업제도, 국가계약 제도 안내, 건설뉴스, 입찰공고, 기자재, 법령, 통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. 현장별 토석 순성도 및 사토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. 현장별로 토석 순성도·사토 현황을 입력 공시할 수 있으며 지도검색 등 다양한 검색 방법으로 토석 현황을 조회해 토석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.

■ 건설행정정보시스템 <CIS>

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업등록, 각종 신고, 행정처분 처리사항 등이 관리되고 있다.

행정처리 결과는 www.kiscon.net에 전자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. 현재 16개 시·도와 234개 시·군·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업체 정보가 종합관리하고 있다.

■ 건설공사정보시스템 <CWS>

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의 운영시스템으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는 통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1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,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. 전국 건설공사수행정보가 종합 관리되고 있다.

■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시스템 <PCM>

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키스콘을 통해 매년 8월 31일 공시되고 있다.

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<EIS>

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도 및 사토 등의 정보를 입력·공시함으로써 수요자가 실시간 조회를 통해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공유시스템이다.

발주자 또는 건설업체가 공사설계, 시공,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순성도 및 사토 정보를 공시하면 누구든지 키스콘을 통해서 GIS 위치 검색 등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세부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이러한 정보 공유로 건설현장에서의 토석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